담양군 올 상사업비 200억 넘었다

〈수상에 따른 지원금〉

행자부 신활력사업 평가 최고 점수 72억 등

복지·농정 등 21개 분야서 각종 상 휩쓸어

담양군이 올해 200억원이 넘는 상사업비(수상에 따른 지원금)와 시상금을 확보했다.

담양군은 올해 정부와 전남도 등의 각종 업무추진 평가 결과 21개 분야에서 상을 휩쓸어 상사업비와 시상금으로 203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담양군은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신활력사업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상사업비 72억 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지방 행정혁신 브랜드 평가 전국 베스트 10, 균형발전 우수자치단체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전남도 주관 을지연습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방세정 평가와 생활민방위 평가에서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환경부 주관 마을상수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상사업비 7억 원을 받게 됐으며 지방의제21 시범사업 평가 최우수상과 자원봉사센터 평가 우수상을 받았다.

농정분야에서도 전남도 주관 친환경농업 평가에서 시상금 2억 원을 확보했으며 농촌지도사업 틈새 소득작목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 소도읍 육성사업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로사업 평가 등 경제개발 분야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창평 삼지천 전통마을이 선정되는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정섭 담양군수는 "올해 각 분야에서 거둔 결실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5만 군민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해남군 초등생 안전 등·하교 돕는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해남군이 관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나섰다. 〈사진〉

해남군은 지난해 3억원을 들여 황산초교와 옥천초교, 화산초교 등 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도로면 미끄럼방지용 포장 휀스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산이초등학교에 '푸른 등학교길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내년에도 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등·하교 시설개선에 나서는 등 오는 2012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

강진 청자문화제 '최우수 축제'

7년 연속 선정 … 국비 3억5천만원 등 지원

'강진 청자문화제〈사진〉'가 7년 연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4일 강진 청자문화제를 최우수 축제로 뽑는 등 전국 1천여 개 축제를 심사해 54개 축제를 2008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강진군은 국비 3억 5천만 원과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고 '문화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라는 공식 행사명칭을 청자문화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조직망을 통해 축제 전반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전담하게 된다.

강진 청자문화제는 가장 한국적인 소재인데다 세계화가 가능한 점 등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96년 시작된 강진 청자문화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지정 집중육성 축제로 선정된바 있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명품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내년 청자문화제는 휴가와 방학철인 8월 9일부터 8월17일까지 9일간 개최된다.

/박진표기자 lucky@

'균형발전 평가'

광산구 최우수

광산구가 최근 국가 균형발전 평가위원회에서 전국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균형발전 정도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구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살고 싶은 광산만들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주민 여론을 수렴하며 각 부문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전개해왔다.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역특화발전 전략 수립시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명문화하는 등 민간지원 조직을 활성화했다.

특히 송정 5일장과 떡갈비 음식거리, 광산로 쇼핑거리를 주요 테마로 설정하는 등 구도심 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추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갑길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이 바르게 잡혀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나주시의회 부의장 선출 파행

민주당 의원 의회직 독식 움직임에 무소속 의원들 제동

의정비 과다인상으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인하 권고를 받았던 나주시의회가 이번 에는 부의장 선출을 둘러싼 감투 싸움으로 파행사태를 빚었다.

나주시의회는 제 118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공석 중인 부의장 선출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무소속 의원들이 의장의 회의 진행을 막는 바람에 자정까지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8명인 민주당(비례대표 2명 포함) 소속 의원들이 6명의 무소속 의원을 배제한 채 독단으로 부의장 선출을 강행하려 한데서 비롯됐다. 현재 나주시 의회는 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 직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맡고 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월 김모 부의장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10월 임시회에서 부의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 소속 의원들간에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부의장 선출 투표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한 의원은 "민주당측 의원들이 6명이나 되는 무소속 의원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같은 당 의원을 부의장을 내정하는 등 의회 감투를 싹쓸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10월 임시회에서 부의장 선출을 미룬 것은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적 의사진행을 물리력으로 막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나주시 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번째로 높은 75%를 인상하려다가 행자부로부터 인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여수시 초·중교 1곳씩 선정

세계박람회 시범학교 운영

여수시 초·중학교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범학교로 운영된다.

여수시교육청은 관내 초·중학교 각 1곳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키로 하고, 각급 학교로부터 응모 신청을 받는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2012 세계박람회 주제(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와 관련된 환경 교육을 포함해 외국어, 예절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한다. 특히 여수시교육청은 2012년 외국인들의 여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시범학교 뿐 아니라 모든 초·중학교에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여수시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구례경찰 전화 친절 응대

주민 만족도 높인다

구례 경찰서(서장 이희성)가 친절한 전화응대 생활화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구례 경찰서는 전화응대 기본 매뉴얼을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전화 친절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구례경찰서는 올 하반기 경찰청이 외주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친절도 점검에서 2위, 4·4분기 전남지방경찰청 평가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농가 예산 확보·복리 증진 앞장

영광군의회 이종윤 의원 소비자연맹 '시민大賞'도

영광군의회 이종윤 의원〈사진〉이 소외된 계층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선인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으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어업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32% 증액된 574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또 유가 급등에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영광군과 협의해 경로당 한 곳당 난방비를 50만 원 증가한 198만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군정질의를 통해 경로당 신·개축 시 찜질방과 피로회복실, 남녀 샤워실을 갖춘 건강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내년부터 지역내 모든 초·중·고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재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다.

또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신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해 성사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 기초의원 중 최초로 '노인정책 의정보고서'를 발간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광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는 '호남의정 시민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운영위원장과 군민의 날 집행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왔으며 복지행정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